

# 인간생명연장의 전제조건

이동식/KBS보도국 국제부장

**유**전공학의 발달에 의해 21세기에 인간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유전자 연구가 끝나는 2003년을 시발로 해서 인간들은 자신의 몸의 비리를 다 알게 된다. 이 때에 사람들은 인체의 세포가 어떻게 늙어가고, 어떤 유전자를 어떻게 조작하면 세포가 늙지 않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는 누군들 자신의 몸을 오래 동안 살려놓은 일을 마다할 사람이 있을 것인가?

새로운 의학은 우리 몸의 배아 형성력을 활발히 이용하게 될 것이다. 골수의 조혈세포가 치료에 투입됨으로써 인간의 수명이 현저히 연장될 것이며 이에 따라 기존의 장기이식이나 바이패스(측관 형성수술) 등이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게 의학계의 전망이다. 그런데 그러한 수명연장은, 이미 여러 번 지적됐듯이, 윤리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를 낳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문제다.

새로운 기술은 골수의 배양과 이식, 탯줄의 피안에 포함된 조혈세포의 투입, 시험관수정을 통한 초기 태아의 세포를 이용하는 장기의 배양 및 복구 등 유전공학을 적용한 기술들이다.

이 기술들은 곧 시험단계를 넘어서 보편적으로 실행되는 시대로 돌입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이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인가? 오스트리아 빈 대학병원의 요한네스 후버 교수는 시험관에서 배양되는 세포를 초기 태아를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초기태아에서 떼어낸 세포를 장기배양이나 회복을 위해

사용할 경우, 이 태아는 성장이 저해되거나 심지어 죽게 된다. 이런 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통해 살아난 사람과 이 치료를 위해 시험관에서 성장하다가 죽게 되는 태아 사이에서 풀 수 없는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기술들은 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의료보험으로 처리되기 힘들고 따라서 부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의료혜택에서도 빈부격차가 벌어지게 되므로 이 또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또 수명이 연장되면 한 사람에게 평생 들어가는 의료비용이 급격히 늘어나 이 비용을 사회가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결국 과학기술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은 제시하겠지만 개인의 수명 또는 한 사회의 구성원의 수명연장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성할 것이기에, 이에 합당한 사회적인 규범과 윤리의식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후버 교수는 제기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든 윤리의식 없이는 기술 진보가 혼란으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수명연장이 나의 생명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사회의 갈등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 타인의 운명에 대해서 무관심한 허무주의적 쾌락주의가 만연되는 상태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의식, 이타주의, 이웃에 대한 책임감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직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법이란 없다는 것이다.

